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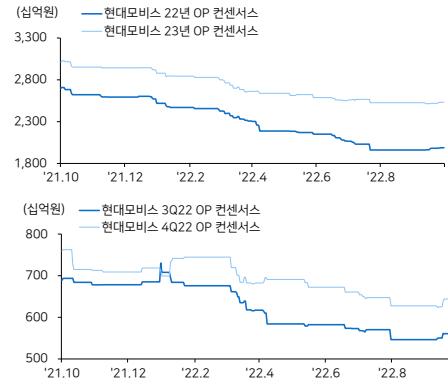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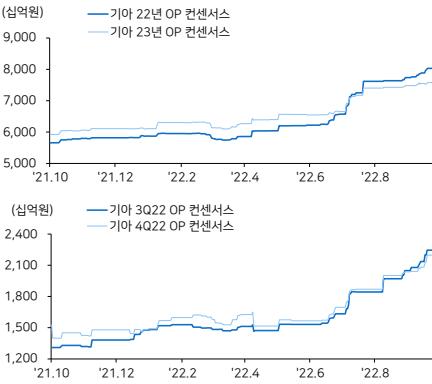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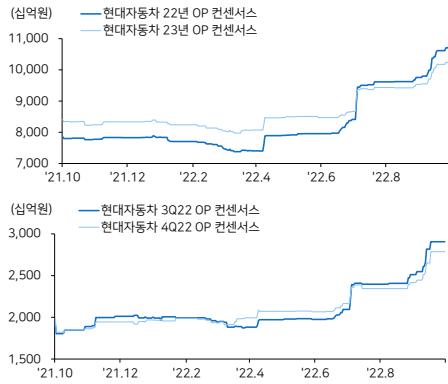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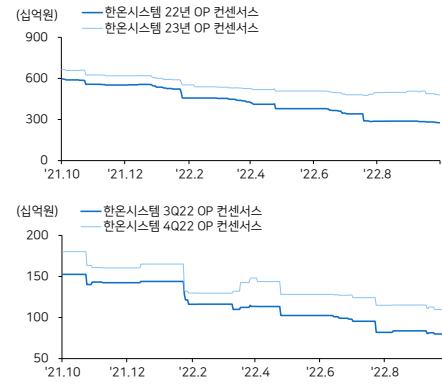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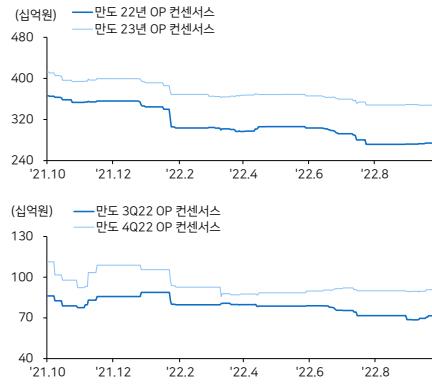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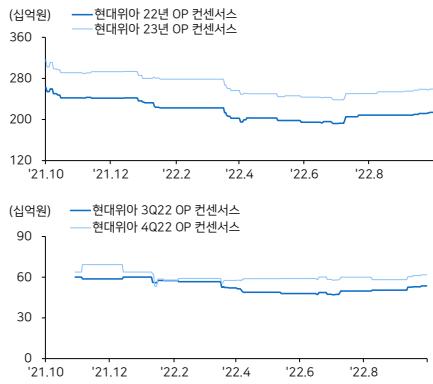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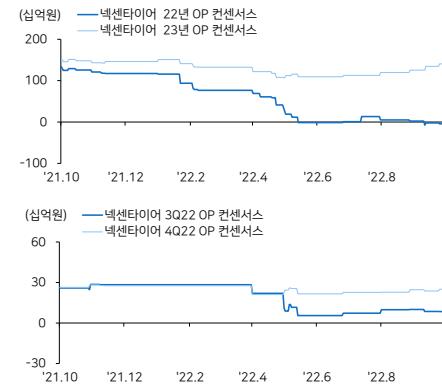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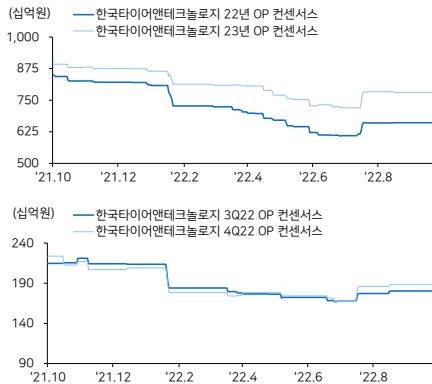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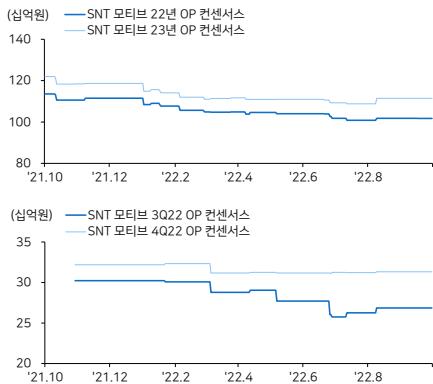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유럽판 IRA' 나오나...국내 車 긴장 (서울경제)

유럽연합(EU)에서도 권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처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유럽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장악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겠다는 취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업체의 수출에 악영향 우려.

<https://bit.ly/3CZfH40>

G90 자율주행 최고속도 60→80km/h 상향 추진...핸들 놓고 달린다 (연합뉴스)

현대차는 올해 초 자율주행 레벨 3 G90 출시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속도를 60km/h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80km/h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제한속도 80km/h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속도.

<https://bit.ly/3sl1lPg>

UAW wants U.S. to bar loans, subsidies for Hyundai over workplace issues (Reuters)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현대차가 아동노동 위반에 관해 공급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한 결정이 근본적 해결이 아니며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https://reut.rs/3gmWocc>

Toyota expects to cut full-year output target due to chip shortage (Reuters)

토요타는 반도체 부족으로 이번 회계연도의 글로벌 생산량 전망치를 970만대에서 하향 조정. 조정폭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며, 최근 5개월간 생산량은 생산계획 대비 6.7% 부족한 상황. 9~11월 평균 생산량은 예상치 90만대를 하회할 전망.

<https://reut.rs/3gbwGRe>

자동차 회사 아니었던? 벤츠·GM이 뛰어드는 신사업 (조선일보)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 북부 자동차 주행 테스트 트랙에 2025년까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 GM은 최근 ESS, 태양광 패널,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서 'GM에너지'라는 이름의 사업부를 신설.

<https://bit.ly/3YidqP>

수리비 비싼 전기차, 일반차보다 평균 보험료 24%↑ (머니투데이)

전기차(동차)이란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가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와 비교해 2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싼 차량 가격과 높은 주행거리로 인한 평균 부품비·수리비의 인상이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https://bit.ly/3TJUX6>

Xpeng opens City NGP to all eligible P5 vehicles in Guangzhou (CNEV Post)

Xpeng이 광저우 지역에서 도심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 LIDAR와 Xpilot 3.5차를 설치된 P5 모델 (\$31,170 ~ 34,500)에 해당 기능이 제공되며, 현재 광저우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향후 수령 가능 도시를 확장할 계획.

<https://bit.ly/3VRJLpW>

Automakers to double spending on EVs, batteries to \$1.2 trillion by 2030 (Reuters)

글로벌 월성차 업체는 2030년까지 EV, 배터리, 원자재 개발&생산에 1.2조 달러를 지출할 계획. 2030년에 연간 약 5,400만 대의 BEV가 생산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8TWh의 배터리 생산용량이 설치될 계획.

<https://reut.rs/3z6nESU>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조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